

화순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대기질 개선...내일까지 접수 올해 3억3000만원 투입 약 20대 지원 예정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다.

올해 3억3000만 원을 투입해 약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

에 등록된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엔진교체 사업자와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화순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17일 전남도 문화재로 신규 지정된 (왼쪽부터) 나주 영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나주 척서정 정해일 초상.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 문화재 3점 전남도 문화재 지정

목조지장보살좌상·목조아미타여래좌상 2점 가치 인정
나주 척서정 정해일 초상도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나주시 영산포 가야산 중턱에 자리한 '영천사(靈泉寺) 소장 불교문화재 2점과 나주 척서정 초상도 1점 등 나주지역 문화재 3점이 전남도 지정문화재로 신규 지정됐다.

나주시는 17일 '나주 영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각각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6호와 문화재자료 제29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나주 운곡동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영천사는 1954년 관불 스님이 창건했다.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지장보살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1535년 전후 제작된 소나무로 판명됐으며 조선 전기 불상 양식적 특징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이 시기 활동한 조각승 향암(香巖)의 작품으로 추정됐다.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단아한 이목구비, 결과부좌에서 한 쪽 다리를 풀어 대좌 밑으로 내린 자세, 장신구 등 16세기 중후반 불상의 특징이 담겨 있어 15~17세기 불교 조각 양식 흐름을 규명하는 중요 사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여래좌상은

얼굴 모습과 착의, 주름 표현, 수인, 넓고 넓은 무릎에 상반신이 짧은 신체 비례 등을 볼 때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불상의 양식적 특징이 잘 표현된 문화재로 평가된다.

특히 복장유물로 다리니와 금강경, 계급발원문, 화취진언 등이 확인됐으며 이 중 다리니(1648년)는 불교 조형 시기를 보완하는 증거로 확인됐다.

불교문화재 외에도 '나주 척서정 정해일 초상(羅州 陟西亭 鄭海鏞 肖像)'도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5호로 지정됐다.

'정해일 초상'은 조선 말기 대표적인 초상화가인 채용신(1850~1941년)의 작품으로 청록색 관복과 마른 얼굴, 반백의 수염 표현이 정교하게 돋보이는 문화재로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돼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남도 지정문화재 지정이라는 뜻 깊은 경사를 축하한다"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연구 진흥을 위한 문화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전통 과자류 상품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추진

오는 7월 22일까지 12차례
매주 목요일 18시~22시 수업

곡성군이 전통 과자류 현대화 및 상품화 교육을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교육생들은 삼색매작과, 강정, 꽃감쌈, 대추쌈, 전통약과, 대추정과 등 전통 재료를 이용해 한국 전통 간식을 만들게 된다. 7월 22일까지 총 12차례 우리음식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영농상황을 고려해 매주 목요일 18시에서 22시에 수업이 이루어진다.



곡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향토 식

문화 계승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우리음식연구회를 육성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며 전통 음식 및 지역 음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통 및 현대 음식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으로 소규모 창업을 유도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체온 측정, 손 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추진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소상공인 노무특강·원데이클래스 운영

담양군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무특강과 취업과 창업 준비하는 군민을 위한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한다.

노무특강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인적자원 관리 및 노무관리, 소상공인 관련 법률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원데이클래스는 관내 구직자를 발굴하고 취·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관내 청년 상인이 강사로 참여해 마카롱 만들기 교육과 청년 창업스토리를 전

해준다.

노무특강은 다음달 3일, 원데이클래스(1차)는 이달 31일에 진행되며 두 교육과정 모두 모집인원은 10명이다.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신청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을 진행하는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군민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터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삼서 사과테마공원

민간 위탁 운영 성과 돋보여

첫해 4000명 발걸음...코로나19 장기화에도 '흑자' 전환 달성도

장성군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마을인 삼서면 드림빌 주민들이 운영하는 '삼서 사과테마공원'이 연 매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삼서 사과테마공원은 드림빌 임주민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빌 단지 인근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이다. 약 8만㎡ 규모 부지에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영농지원창고, 저온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또 1300여주의 사과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이 있어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에 활용된다.

삼서면은 장성 사과의 주산지다. 장성 사과는 서리를 맞은 뒤에 수확해 당도와 식감이 탁월하다.

드림공동체영농조합은 드림빌 주민과 영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매년 1~3월 사과나무를



분양해 사과꽃 나들이 행사, 사생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사과를 이용한 각종 가공제품도 생산한다. 특히 다양하게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며, 운영 첫 해부터 4000여명의 발걸음이 모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었음에도, 흑자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방문 애로사항 해결

곡성군이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현장을 찾아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지난 6. 7, 11일 3일 간 곡성군 유근기 군수와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중 독립경영(예정)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청년 농업인 7명을 만나 농업현장을 체크하고, 각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성공적인 영농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에 눈에 먼저 띈 것은 멜론 재배 현장과 앞뜰재 재배 현장의 작물 피해 상황이었다. 농가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곡성군 측은 작물 피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토양 시료를 채취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토란 가공 공장 건축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당 부서인 민원실에 전달하며 의견 수렴 창구의 역할을 수행했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 군 <도문대작>

